

HYUNDAI E&C TODAY

2016 / 12 / 2
Friday
Vol. 326

04 2016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스케치
2016 Hyundai E&C Technology Conference

05 124년 된 스타트업, GE
GE: 124-old startup company

09 2016 사회공헌 결산
2016 report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ift of friendship based on cooperation

상생과 협력이 싹틔운 우정이라는 선물

화양~적금(2공구)도로건설공사현장의 두 막내, 최태하(현대건설) 사원과 박건욱(케이블텍) 사원



News 서울에서 KTX를 타고 세 시간. 여천역에서 다시 한 시간 가량을 달려 도착한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사한 노을을 볼 수 있다는 여수 여자만에 위치해 있다. 남해의 거친 바다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최태하(28) 사원과 박건욱(25) 사원은 힘든 현장에서 또래 친구를 만나 의지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를 '아름다운 동행 스토리 공모전'에 보내왔다. 이들에게 현대건설과 케이블텍이라는 소속은 중요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전문 엔지니어로 성장해나 가겠다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힘이 되는 평생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그저 행복하다. ▶ 관련기사 6, 7면

Hwayang-Jeokgeum (Zone 2) is located in the Yeosu Bay, Yeosu, which is said to see the most wonderful sunset in the country. Choi Tae-ha and Park Geon-wook in their 20s sent their story to the Go Together Story Contest by saying in chorus that they depend on each other as a good friend in the construction site where both started their career. They belong to Hyundai E&C and Cabletek, respectively, but this does not matter to them. They said they are just happy with becoming lifelong friends who have the same dream of developing their career as an expert engineer. ▶ Continued on page 6 and 7.

현대건설, '음성 인식 아파트'로 주거 패러다임 바꾼다

지난달 21일 네이버와 업무협약 체결... '보이스 홈 서비스 개발' 적용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와 함께 음성 인식 아파트 시대의 막을 올린다.

현대건설은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정수현 사장과 네이버 김상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 홈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 홈 서비스'는 현대건설이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 중인 힐스테이트의 첨단 스마트홈 플랫폼 '하이오티(Hi-oT)'와 생활환경지능기술에 네이버의 음성 인식기술 등을 융합한 것으로, 입주민들이 음성만으로 가사 업무를 해결하고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개념 기술이다.

향후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은 세대 내 어디서나 음성 명령만으로 빌트인(built-in) 기기나 하이오티와 연동한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자동 검색은 물론 실시간 뉴스 검색, 날씨 정보, 해외여행 예약, 피자 주문 등도 음성으로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왼쪽)과 네이버 김상현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7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단지부터 '보이스 홈 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수현 사장은 "네이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사업 전반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생활환경지능(Ambient Intelligence)*을 결합한 디

블 A.I(Double A.I) 기술을 적용해 미래 주거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생활환경지능(Ambient Intelligence)=사람의 존재를 인식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시간에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Hyundai E&C changes the housing paradigm with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Hyundai E&C sets out to open an era of the "voice recognition apartment" in cooperation with Naver, Korea's top search portal. Korea's primary builder signed the business agreement in its head office in Gyeongdong, Seoul, on November 21 to develop the "voice home service."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Hyundai E&C CEO Jung Soo-hyun and Naver CEO Kim Sang-hun. The voice home service is designed to combine the Hi-oT, the Hillstate's state-of-the-art IoT technology developed and successfully commercialized by Hyundai E&C, and Naver's ambient intelligence technology and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The new technology is expected to enable residents of Hillstate to take care of housework and gain useful information on lifestyle by using only their voice.

The residents of the country's premium apartment brand will be able to issue commands with their voice to control built-in equipment and Hi-oT-connected home appliances wherever they are within their unit. Moreover, they can use Naver's automatic search service and real-time news search function, browse weather information, book overseas trips and even order pizza only with their voice.

Hyundai E&C will offer a var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combined with the voice home service to Hillstate complexes to be put on the market in the second half of 2017.



NEWS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 출시

현대자동차가 11월 22일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김포 항공산업단지에서 현대자동차 양웅철 부회장을 비롯해 자동차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그랜저'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다.



2011년 5세대 그랜저 출시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신형 그랜저는 기존 모델의 가치와 명성을 이어받아 프리미엄 세단으로 거듭났다는 평이다. 특히 '최고의 완성도'라는 제품 개발철학 아래 ▶디자인 고급화 ▶파워풀한 동력성능 ▶균형잡힌 주행감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 등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제16회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이 11월 25일 한국환경계획조정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제16회 자연환경대상'에서 일반 분야 '도시 및 인공지반' 부문 최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연환경대상'은 일정 지역을 생태적·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보전·복원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위례신도시 A3-7BL 공동주택'을 출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5년 11월 준공한 이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15~24층, 13개 동 970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총 대지면적 5만7185㎡ 중 조경면적 2만3624㎡로 41%의 높은 녹지율을 자랑한다.



현대종합설계, 행복플러스 사랑의 보금자리 CSR 활동

현대종합설계가 11월 10일~17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소재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12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플러스 사랑의 보금자리'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종로구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해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 주는 방풍비닐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현대종합설계 관계자는 "지난 9월에도 해당 지역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행복플러스 사랑의 보금자리' 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부서 소식

구매본부, 하반기 구매분과 H Leaders 간담회 실시

구매본부가 11월 4일~11일 양일간 '하반기 구매분과 H Leaders 간담회'를 열었다. 구매분과 H Leaders 간담회는 주요 협력사와 밀접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연 2회 진행된다. 지난 4월에 이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건축·플랜트제 분과 48개 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서울 인근 돌레길 트레킹과 석식 순으로 진행됐다. 구매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선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협력사 관련 제도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감동 경영' 펼친다

힐스테이트, 콜센터품질지수 아파트 부문 2년 연속 1위

힐스테이트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6 KSCQI (Korean Standard-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품질지수' 조사에서 2년 연속 아파트 부문 1위에 올랐다.

'콜센터품질지수'는 콜센터 서비스 품질 수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서비스 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콜센터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이다. 올해는 6월부터 3개월간 141개 기업과 26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 평가와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파트 부문 2년 연속 1위에 오른 현



콜센터품질지수 인증 수여식에 이인기 건축사업지원실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했다.

대건설 고객센터는 2007년 건설업계 최초로 '고객센터 대표전화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서비스

를 제공해 왔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문의(분양·계약·공사·하자보수·민원 등)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전

문 상담인력을 두고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로 접수된 대부분의 상담은 일원화된 고객 응대 절차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해 고객 만족도가 높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인 결과 2년 연속으로 콜센터품질지수 아파트 부문 1위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무한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2016 KSCQI 콜센터품질지수' 인증 수여식에는 우리 회사 이인기 건축사업지원실장, 한석희 센터장이 참석했다.

Tailored service for customer-oriented management

Hillstate has been selected as no. 1 of the 2016 KS-CQI (Korean Standard-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Call Center Quality Index in the apartment category for two consecutive years. This year, the Call Center Quality Index conducted an

online survey and a telephone monitoring evaluation of 141 companies and 26 public institutions for three months from June. The Customer Center of Hyundai E&C introduced the hotline system,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local construction indus-

try, in 2007. Since then, our company has offered top-notch customer services in a consistent and prompt way. To quickly resolve a wide range of issues related to sale in lots, contracts, construction works, defect maintenance and other complaints,

our company operates the systematic consultation system by providing specialized counselors. Most of the issues received are solved through our unified customer response procedure, which leads to increasing customer satisfaction.

'제8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2개 부문 수상

우리 회사가 11월 14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장관상, 조경학회장상 등 2개 부문 동시 수상의 쾌거를 올렸다.

(사)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을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우리 회사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마곡 힐스테이트'가 조경 공간 조성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조경학회장상'을 수상했다.

문화관광 부문에 출품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소비 위주의 공간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친수·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문화와 예술의 장소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공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녹지 부문에 출품한 '마곡 힐스테이트'는 단지 중앙의 보행로에 대규모 경관 조형 시설물을 배치하고 단지 곳곳에 창의적 놀이공간을 조성해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조경부터 공공·일반건축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조경 업계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공동주택 조경 디자인으로 최고의 조경 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

우리 회사 경영진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리더십 교육에 참가했다.

11월 23일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71명은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찾아 '2016년 하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경영진들은 지진·태풍·화재·교통사고 등 4개 체험관을 돌아보며 재해 및 재난을 직접 경험해 봤다.

지난해 9월 처음 실시한 안전리더십 교육은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정수현 사장은 총평에서 "회사 안전문화는 경영진의 솔선수범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교육에 참석한 경영진들이 앞장서 연말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하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사전작업허가제 준수 ▶밀폐공간 가스 농도 측정 ▶인양물 하부 출입 금지 ▶건설 장비 안전장치 해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대건설 12대 안전규범(HDEC 12 Safety Golden Rules)'을 제정·선포하는 등 체계적인 현장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각 시공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품 현장 적용 성공

우리 회사가 최근 공기단축에 효과적인 교각 시공 기술을 개발해 '장항선 2단계 제4공구 노반시설' 현장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교각 기둥 일괄시공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품은 교각이 많은 교량의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개발한 가설장비다. 유압으로 자동개폐가 가능한 품과 선조립 철근망을 이용해 기존 2~3회 분할 시공하던 교각(10m 이상)을 일괄 시공할 수 있어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직경 2.2m, 높이 9.7m인 장항선 대청1교 14번 교각 기둥에 적용해 효과를 확인했다.



장항선 대청1교 14번 교각 시공 모습.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자동화 시스템 품을 유사 교각이 많은 현장이나 급속시공이 필요한 현장에 적용하면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공 효율성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12월 분양

우리 회사가 1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1,2번지 일대의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를 분양한다.

복합주거단지인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는 최고 49층, 아파트 1132가구, 오피스텔은 54실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아티움시티는 에너지 절감·보안, 안전·편의시스템 등 힐스테이트만의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KTX창원역·창원중앙역, CGV 창원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의 모델하우스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에서 개관한다.

분양문의 055-285-0001

How to be 'Happy as a Dane'

Nov 14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Koreans usually excel at: like getting things done quickly and precisely, for instance.

But being happy isn't a particular strength of Koreans, and there are statistics to prove it. According to the World Happiness Report, published by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in March this year, Korea ranked 58th.

Malene Rydahl, who calls herself an ambassador of happiness, may be able to help. Despite the long and dark winters and notoriously high taxes - at almost 60 percent - Denmark usually comes in at the top of most of the happiness rankings. It also ranked number one on the UN's World Happiness Report this year. Her first book, "Happy as a Dane," was published in April 2014 in France and became a bestseller in the country.

Q After your book was published in France, it has been published in Japan, Korea and Taiwan. Why do



Malene Rydahl, the author of "Happy as a Dane".

you think it's getting noticed in East Asia?

Maybe it's mutual love. (laugh) I'm very attracted to Asian culture, even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among different countries. I think the fascination of the Danish model is big because it's so different [from the East Asian model]. It was surprising to me too. I think they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parts about trust, educational

system and work-life balance.

Q Why do think the Danish are happy? Do you think it's in their genes?

There are some studies that say that. But I think part of it has to do with modesty. There have been some observations on how people correlate money with happiness. Generally you would think that the more you

have, the happier you are. But it's not like that in Denmark. They don't aim for big ambitions of wanting to be the best. I think this modesty of wanting to be just okay gives you a little bit of peace.

Q The Danish model of gender equality is also very interesting. What can Koreans learn?

The interesting thing in Denmark is that we've also liberated the men. This is where the whole key lies to the balance

of gender roles. If we only liberate the women, all responsibilities lie on her.

For the balance, you also need to liberate the men so that he can leave early, take care of the house, or so he can be emotional, he can say I have pick my children up maybe once or twice a week [to his superior]. Soft men have a place in society in Denmark.

By KOREA JOONGANG DAILY

덴마크 사람처럼 행복해지는 방법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 등 한국인들이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행복해지기'는 한국인들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58위에 불과하다.

자신을 행복 전도사라고 말하는 말레네 뢰달(Malene Rydahl)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덴마크는 길고 어두운 겨울과 60%에 육박하는 막대한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덴마크는 올해도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뢰달의 첫 저서인 『덴마크 사람들처럼』은 2014년 4월 프랑스에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다.

Q 프랑스에서 책이 출간된 이후 일본, 한국, 대만에서도 출간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상호 간의 사랑이라 생각한다(웃음). 나라 간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는 아시아 문화에 상당한 매력을 느낀다. 덴마크 모델이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동아시아 모델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놀랐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특히 신뢰, 교육제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관심이 많다.

Q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행복 유전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중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덴마크에서는 그렇지 않다. 덴마크 사람들은 최고가 되고자 하는 큰 야망을 목표로 두지 않는다. 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을 줄 것이다.

Q 덴마크의 성평등 모델 역시 매우 흥미롭

다. 한국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에서는 남성 해방도 함께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다. 성 역할의 균형이 핵심이다. 단순히 여성 해방만을 한다면 모든 책임은 여성이 지게 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남성도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남성도 일찍 퇴근해서 가정을 보살필 수 있고, 남성도 감정적일 수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고 (상사에게) 말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부드러운 남성들도 사회에 설 자리가 있다.

Key expressions

notoriously 악명 높게
fascination 매력
correlate 연관성이 있다

KITA expects export rise in 2017

Nov 29

Despite political risk factors such as Donald J. Trump's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nd a presidential scandal at home,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one of the nation's major business lobbying groups, expects 3.9 percent growth in exports for the coming year, turning around two straight years of export declin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ade, a research body under KITA, Korea's exports in 2017 will grow 3.9 percent to \$516.5 billion, and imports will increase 7.3 percent to \$433.5 billion,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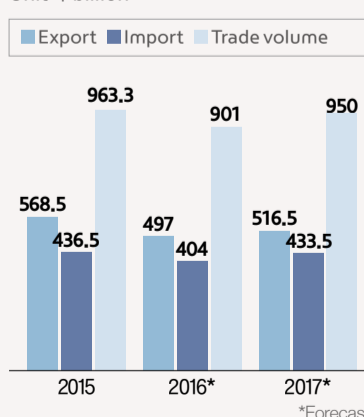
is betting on recovery in developing economies and a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as projected growth in developing economies' import demand next year to be in the range of 1.8 percent to 3.1 percent. They're expected to be a favorable market for exporting countries. "Developing nations under government-led economic plans such as India, Vietnam and Indonesia are expected to see rapid growth," the institute said in a report.

The biggest export growth is expected to be in petrochemicals

2017 trade forecast

Unit: \$ billion



and petroleum. An international oil price hike means products will be exported at higher mar-

gins. "International oil prices will remain around \$50 in 2017, up from \$43 a barrel this year as oil-producing countries are eager to settle oil prices," said James Huh, an analyst at Samsung Securities. OPEC is discussing ways to cut oil production ahead of its meeting on Wednesday.

Exports of IT-related products such as semiconductors and mobile device parts, in which Korea ha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ill also remain strong, the report said, but vessel sales will decline due to global oversupply.

By KOREA JOONGANG DAILY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Q Please describe the picture.

In this picture, there are four people who are having a water fight. Looking at the picture, you can notice that the person wearing a gray shirt is an adult. One may assume that the adult is the children's guardian. The three children are wearing bathing suits indicating that the weather is very hot. The girl is wearing a pink bathing suit, the boy with dark brown hair is wearing a blue bathing suit, and the boy with blonde hair is wearing a yellow-greenish bathing suit. In addition, looking at their outfits, one can assume that it is summer. There are many trees in the background, which shows that the water fight is taking place in the park.

Opinion Question 유형

Q People all around the globe celebrate a wide variety of holidays. What is your favorite holiday and why do you enjoy celebrating that holiday? Please provide reasons and make sure to elaborate on each of the reasons.

My favorite holiday is Christmas. I enjoy celebrating Christmas because of several reasons. Firstly, I enjoy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It is a ritual for my family to gather around during Christmas. Because I have a large family, it is difficult for all of my family to spend time together. Thus, Christmas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me to spend a great time with all of my family members. Secondly, I can eat a lot of delicious food. During Christmas, our entire family gets together to cook. Among all my family members, my sister's husband is an excellent cook and I especially love eating his pie.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

Nov 29

Fantasy, adventure/ 132/ English



Harry Potter fans may have felt sad walking out of theaters after watching the last movie of the series, but another magical adventure from Harry Potter author J.K. Rowling is coming to screens, ready to take them on another enchanted journey.

This time, the stage is New York in 1926. A British sorcerer named Newt Scamander, played by Eddie Redmayne, steps into the United States with a bag full of magical creatures. His aim is to gather the magical living things roaming around the world.

While Scamander passes by the bank, however, Niffler, a magical creature that has a predilection for anything glittery, escapes out of Scamander's bag. While trying to fix this matter, the problem grows even bigger when Scamander's bag gets switched with another's, and other creatures end up escaping as well.

By KOREA JOONGANG DAILY

R&D 혁신 스토리 2016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스케치

미래 건설 메가트렌드를 이끈다

올 한 해 우리 회사는 글로벌 건설사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4년 연속 1위 선정 등 공신력 있는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기술력 확대에 남다른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18일에 개최한 '2016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 역시 업종 선도기업으로의 면모를 과시한 자리였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건설기술 학술발표회인 이 행사에는 건설의 미래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발표돼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었다. 글=안지예 대리(R&D기획실) / 사진=이승기



1 지난달 18일에 열린 '2016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현대건설의 연구 성과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3 '2016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에는 국내외 건설 관련 전문가 및 엔지니어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4 입장 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프로그램북 다운로드 안내를 받고 있는 참석자들.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의 장

"This year, the conference aims to seek new opportunities preparing for new business models under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attempt to go beyond EPC contractor(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과 신규 시장 진입을 모색해 단순시공 위주의 EPC 기업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2016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는 최신 선진 건설기술 동향과 미래 건설기술을 전망할 수 있는 건설 엔지니어의 축제였다. 해외 선진 건설사와 전문 엔지니어를 포함한 국내외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컨퍼런스에서 정수현 사장이 환영사를 통해 강조한 사안 역시 신성장 핵심 동력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는 2004년부터 우수 건설사 엔지니어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현대건설 기술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기술대전과 함께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으로 개최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메인 세션과 기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총 17명의 강연자가 연단에 나섰다. 메인 세션에서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 : Agenc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의 라지 탐푸란 부청장이 '경제·공학·건설 분야 관점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GE워터(GE WATER)의 호상 수바와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이 '현대건설과 GE의 물사업 분야 협력 및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스페인 ACS그룹의 알베르토 로차 기술혁신본부장이 'ACS그룹의 사업 확장 전략 및 혁신 도전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맨 처음 연단에 오른 라지 탐푸란 부청장은 "건설 분야가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해 가는 만큼 기존의 시각만 고집할 경우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공학 등 새로운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봐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도 새로운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진 기술 세션에서는 ▶스마트 건설 ▶물&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건설 분야 메가트렌드에 주목한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과 신규 시장 진입이 논의됐다. 해양항만 분야 전문가인 탄 순 킷

(Tan Soon Keat)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TU) 교수는 우리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부유식 해상플랫폼 모듈 및 계류시스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기술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을 풀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분야별 전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글로벌 건설기술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학술발표뿐 아니라 비즈니스 확장 전략, 전략적 제휴 방안, 금융조달 방법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제안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의 장이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번 행사에 초청된 해외의 전문가들은 컨퍼런스 전 우리 회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차그룹의 그룹사들과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이런 교류의 자리는 건설 분야에 ICT, 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건설산업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도로 마련된 것이기도 했다.

경계를 허무는 작업은 컨퍼런스 운영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올해 컨퍼런스는 관계자에게만 보내지던 기존의 오프라인 초청장 발송 방식 대신 홈페이지, SNS, 이메일 등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보다 다양한 이의 관심을 유도했다. 덕분에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관업계 관계자나 건설 관련 학계 외에도 다양한 연구기관 및 학생들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해 참석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도 호평을 얻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동종사 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익한 컨퍼런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참석했다"며 "평소 만나기 힘든 관련 분야 석학들의 강연을 직접 듣고, 앱을 통해 강연 중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문까지 할 수 있어 아주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기획한 연구개발본부 R&D전략팀은 "매년 새로운 테마를 선정해 기술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마케팅·사업화·공동연구를 염두에 둔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현대차그룹을 아우르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MINI Interview

이석홍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



Q 이번 기술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중점을 둔 사안이 있다면?

이번 기술컨퍼런스가 현대건설을 포함한 국내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신규 시장 진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건설, 물&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글로벌 선진사,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수 건설사의 엔지니어와 전문가 초창이 우리 회사와의 실질적 협업관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심하였습니다.

Q 10년이 넘는 장수 컨퍼런스로 이전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변화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운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을 이용해 프로그램, 발표 자료 등을 배포하고 기술 세션에서는 Q&A까지 연계했습니다. 이는 보다 활발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해 참석자들은 물론 강연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운영 방식도 스마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사업으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술컨퍼런스를 찾은 건설 전문가 3인방 인터뷰

"Open Innovation으로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현"

제가 소속된 A*STAR는 싱가포르의 과학 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청입니다. A*STAR는 건설,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열린 혁신(Open Innovation)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스마트한 도시 인프라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R&D에 대한 투자를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A*STAR는 R&D 지원, 공동연구뿐 아니라 개발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마케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컨퍼런스를 통한 현대건설과의 인연이 공동연구와 기술 상용화를 위한 분야는 물론, 더 나아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현대건설과 글로벌 파트너를 맺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지 탐푸란
(Raj Thampuran)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STAR) 부청장



"기술 패키지 상품화로 신시장 공동 진출 모색"

GE는 수처리 및 폐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에 최첨단 분리/여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신식 수처리 R&D 센터를 설립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GE와 현대건설이 기술 최적화를 통한 R&D와 사업 진출을 공동으로 추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BR(Membrane Bioreactor), 폐수 재이용, AnMBR(Anaerobic Membrane Bioreactor) 세 기술에 대한 기술 패키지

를 상품화하고 마케팅 채널을 공유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등 신시장 공동 진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상 수바와라
(Hoshang Subawalla)
GE워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장



"선진사와의 협업으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가 우선"

태양열 발전 중 CSP(Concentrated Solar Power) 방식 전문회사로 노하우를 말하자면 규모가 작은 사업부터 접근하는 것이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건설은 CSP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저감을 위해 선진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CSP 핵심 기술인 리시버나 헬리오스탯에 대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체 밸류체인상 현 시점에서의 경쟁우위 기술과 기술 보유 기업

을 파악한 후 핵심 역량이 확보된다면 기술 기반의 O&M 사업 수행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베르토 로차
(Alberto R. Rocha)
스페인 ACS그룹
기술혁신본부장





1 캐나다 퀘벡주 브로몬트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 공장에서 엔지니어가 제트엔진 부품을 점검하고 있다. 2 탄소섬유 소재가 적용된 GE 90 비행기 터보팬 엔진. 3 GE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비를 이용해 환자가 진단을 받고 있다.

해외기업경영 트렌드 17 GE

124년 된 스타트업 GE, 룬련의 비결은 '혁신 또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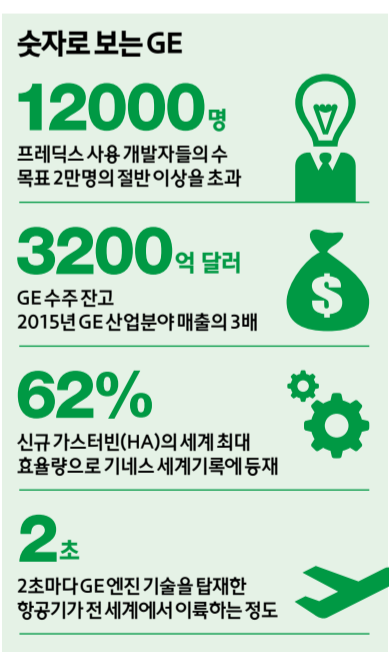
노익장 노당익장(老益壯 老當益壯). 성장할 때는 늙지 않는다는 뜻으로, 2000년 전 중국 후한 때부터 내려온 말이라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노쇠함에 절대기준은 없다. 기업도 그렇다. 수많은 회사가 명멸하지만 혁신하는 기업은 오래 가는 법. 올해로 창립 124년을 맞이한 제너럴 일렉트릭(GE)은 글로벌 장수 기업 중 하나다. 1892년 '발명왕' 에디슨의 전기회사를 모태로 성장한 GE는 미 다우존스산업지수가 출범할 당시 지수에 포함된 12개 상장 기업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회사다. 글=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사진=GE 제공

GE는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서 없이 성장 기반을 재편해왔다. 지금도 GE는 물리적인 유형 제품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 중심의 제조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GE를 제조업체로 알고 있지만 2015년 제조 부문(GE에서는 산업부문이라 부름) 매출 1088억 달러 중 44%가 서비스에서 창출하고 있을 정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여 제조 영역과 서비스 영역이 모두 사업 대상이 되는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산업 기업(Industrial Company)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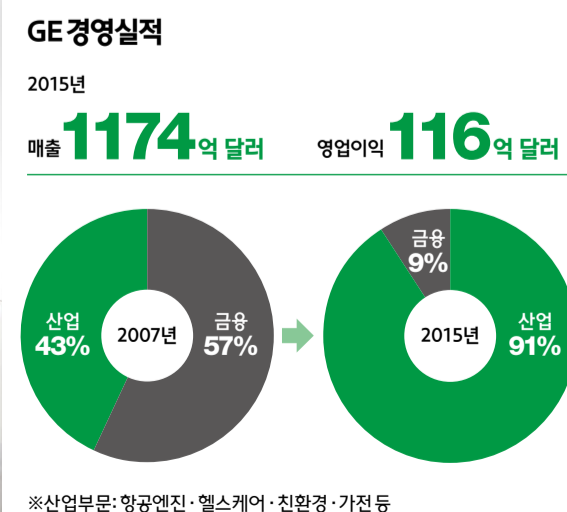
GE가 변신 기업으로 이름을 얻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였다. 방만한 경영과 수익 감소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자 1981년 취임한 잭 웰치(Jack Welch) 회장은 대대적인 사업 개편에 나섰다. '1등이나 2등 사업이 아니면 버리는' 원칙을 세워 핵심(제조), 첨단기술, 서비스 등 3대 영역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Three Circle' 전략을 실행했다. 뒤이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시스템 개편에도 나섰다. 그 유명한 워크아웃(Workout)과 베스트 프랙티스 방식, 인사평가 및 승계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잭 웰치 회장은 10여년에 걸친 구

조개혁이 마무리되자 1994년부터 신사업 발굴을 포함한 미래의 GE를 갖추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1994년 '글로벌화', '6-시그마 품질', 제품의 서비스 영역 사업을 가리키는 '제품 서비스(Product Service)'를 전사전략으로 삼았고, 1999년에는 'e-비즈니스'를 추가했다. 잭 웰치 회장 취임 시 제조부문의 매출이 81%였던 GE의 사업구조는 1999년에 금융·방송·제품 서비스 등 55%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2001년 9월 잭 웰치 회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멜트 회장은 사업 고도화를 위해 자기자본이익률 20% 이상, 장기 성장 분야에 투자 집중, R&D 투자 확대로 사업 운영 방침을 설정하는 등 6개 성장 사업 부문을 새로 짰다. 고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수단으로 상상력 돌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GE는 정부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상황이 되자 캐피탈 부문을 정리하고, 제조 부문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멜트 회장은 2009년 6월 29일 제조업과 수출에 다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이른바 'U턴 전략'을 역설했고 그해 12월 10일에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이익 급



출처: GE사업보고서(2016년 2분기) 기준



증에 기댔던 것은 실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멜트 회장은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 모델로 회귀하는 것을 거부했다. 소프트웨어, ICT를 결합한 '서비스 중심의 제조 모델'로 부활하는 것이 목표였다. 1994년부터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ICT를 활용한 '제품 서비스' 사업에서 자신감을 보여왔고 2000년대 후반 아마존, 애플의 소비자 대상 플랫폼 사업의 성공 사례, IoT(사물 인터넷)화로 인한 연결성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주효했다. GE의 '제품 서비스' 사업은 기기(엔진·의료기기·기차)를 전자적으로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해주는 계약 서비스다. 이 사업은 2010년에 금융·방송부문을 제외한 전자 매출의 42.2%, 영업이익률의 29%에 달하는 고수익성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켰다. 유형의 제품에 데이터 기반의 제어 기능, 문제 예측, 예방 정비 등을 추가한 '디지털 산업 제품'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GE는 더 이상 유형제품만 판매하지 않으며 고객의 비용 절감과 성과 향상을 위해 데이터와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멜트 회장은 2015년 9월 GE를 '디지털 산업 기업(Digital Industrial Company)'으로 명명했다.

완벽주의 버리고 맘껏 실수하라?

이멜트 회장은 신성장동력의 라인업을 발표한지 15개월 만에 스타트업 자금 지원을 결정한 뒤 혁신코치 500명을 고용했다. 이 소규모 별도조직은 오로지 내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움직인다. 소프트웨어 분야로 체질개선에 성공한 이면에는 이같은 스타트업 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뉴욕 본사와 떨어진 실리콘밸리 인근에 업무공간을 마련했다. 본사 건물에서도 벽을

허물어 소통을 강조했다. 이멜트 CEO가 식당으로 쓰던 곳에는 소파와 화이트보드 등을 가져다 놓고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도록 했다.

GE는 각 스타트업에 90일 안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한다. 바로 패스트워크(Fast Work) 전략이다. 빠른 속도로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 반응을 살펴 제품에 즉각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는 스타트업의 전략을 GE식으로 적용한 것이다. 실제 패스트워크 도입 이후 제품 개발기간을 2년 이상 단축했다. 6시그마가 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기법이라면 패스트워크는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해 신상품 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인 혁신적 경영기법이다. GE는 전사적으로 400개 이상의 패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GE가 원하는 인재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매년 10억 달러(약 1조 62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올해 60년이 된 GE 크로톤빌 리더십개발센터는 GE 내부 직원뿐 아니라 세계 경영인들의 사관학교로 불린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회의 방식인 '워크아웃 타운미팅'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SWOT 분석' 등이 모두 이곳에서 탄생한 GE의 작품이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최고 성과자로 한다는 과격적인 내용의 인사혁신안도 추진 중이다. GE코리아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멜트 회장은 "GE의 목표 중 하나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E 임원들은 3~4년 전부터 아마존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창업 인재들을 만나 작은 기업의 노하우나 운영 방식을 배우고 있다.

이멜트의 GE, 선택과 집중 승부수
SW 중심으로 핵심사업과 감히 재편
2020년 세계 톱 10위 카운트다운



테마토크 우수 봉사직원 3인 인터뷰

“추위 녹이는 봉사활동의 매력,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세요~”

타인의 작은 배려가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어르신들의 말벗 되어 주기, 청소년 꿈 응원하기, 결식 어린이의 점심 챙기기 등은 수혜자에게 큰 행복이 된다. <사보신문>에서는 올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직원 3인을 만났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모습과 달리 강인한 내면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봉사활동하며 쌓은 즐거운 추억

Q 인터뷰 주제가 ‘우수 봉사 직원’입니다. 소감이 궁금한데요.

정기안 과장(이하 ‘정’) 크게 내세울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꿈키움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무렵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노봉균 과장(이하 ‘노’) 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니 이런 인터뷰도 하게 되네요(웃음). PRM사업본부는 2013년부터 노인종합복지관 점심 배식 봉사를 한 달에 두 번 8~10명씩 팀을 이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품질기획팀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인원을 배정하는 일을 하고 있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본부를 대표해 인터뷰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성실하게 봉사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지석 사원(이하 ‘양’) 올해 쌓은 CSR 마일리지 전 직원 중 톱10 안에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온 터라 봉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부끄럽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Q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노 처음에는 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고,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했어요.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 꼬박꼬박 가다 보니 점점 그 매력을 알게 됐죠.

양 일곱 살 때부터 적십자 봉사대원인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봉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열정적이시다 보니 저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된 것 같아요. 올해 한 사내 활동은 ‘사랑 나눔 도시락’이고요. 적십자를 통해서 한 달에 두 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필요를 살피고, 한 달에 한 번 장애아 동시실에 있는 아이들 집에서 돌보는 ‘가정 위탁’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정 ‘꿈키움 멘토링’은 직원 멘토와 대학생 멘토, 청소년 멘티가 짝을 이뤄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청소년 멘티가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에요. 저 역시 사춘기로 한창 방향할 때 YMCA, RCY에 소속된 대학생 형, 누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른이 되면 받은 애정과 관심을 나누겠다고 다짐했었죠. 신기한 건 제 멘티도 대학생이 되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해요. 선순환되는 것 같아 뿌듯했죠(웃음).

Q 청소년 멘티에게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있나요?

정 멘티와는 2년째 함께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중2여서 ‘중2병’에 걸렸다고 놀렸는데, 확실히 중3이 되니까 철이 든 느낌이에요(웃음). 멘티는 반에서 1등을 도맡을 만큼 똑똑하고, 사회정의 실현에도 관심이 많아요. 꿈도 경찰대학에 진학하는 거죠. 대학생 멘토는 멘티에게 부족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멘토링해 줘요. 2주에 한 번 만나지만 ‘단톡방’에서 일상 이야기부터 이성 고민 상담까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죠. 2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무척 친해졌어요. 에피소드도 많고요. 지난 연말엔 멘티가 보신각 타종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가정이고, 당시 대학생 멘토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스케줄 빼기가 어려웠지만 멘티의 소원이라고 하니 12월 31일에 셋이서 종각역에 갔어요. 빨리 가야 자리를 잡으니까 이른 시간부터 기다렸는데, 날은 춥지 사람은 많지~그제야 멘티도 ‘이런 날은 집에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대요(웃음). 허무했지만 타종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터라 기억에 남아요.

Q 4년째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만큼 피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을 만나기에 개인적인 친분을 갖기는 어렵지만 자주 오는 어르신들의 특징은 파악하고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이걸 정말 다 드실 수

됐어요. 큰 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활동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한 일어서서 본부 직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죠.

Q 회사 안팎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양 ‘사랑 나눔 도시락’ 활동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맡은 수혜 아동의 집은 늘 사람이 없거나 모두 자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없어 아쉬운 마음을 ‘데일리 레터’에 적었죠. 서두는 늘 “안녕, 나는 키다리 아저씨야”였는데(웃음), 문화 체험의 날 때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 멀리서 “키다리 아저씨, 저 아저씨 맞는 것 같아요”라

서 한다고 하는데요, 소외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양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일부가 프랑스 건설사 방시(Vinci)의 후원으로 복원됐다고 하죠. 그때 우리 회사도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에 보다 적극적이면 어떨까, 생각했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꿈키움 멘토링’이에요. 올해 하고 싶었는데, 사내 봉사 경력을 쌓아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에 한 ‘사랑 나눔 도시락’ 활동은 사실 ‘꿈키움 멘토링’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스펙 쌓기’였답니다(웃음).

Q 사회공헌 활동에 마음이 있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정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해요. ‘꿈키움 멘토링’ 활동에 열정적인 부장님이 계시는데,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노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무시간 중 네다섯 시간을 빼서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본부에 계신 분도 우리 본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SR 마일리지 필요한 분이나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양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수혜자도 즐겁고 나도 행복해져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누었다니 더 크게 얻었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하는,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 버리면 수혜자도 즐겁고, 나도 행복해져~
울겨울 추위, 봉사활동으로 이겨내세요!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드세요.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다른 분들과 비슷한 양으로 드렸죠. 더 달라고 해도 본인의 양을 계속 못 맞추니까 나중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밥 양을 알게 된 후로는 처음부터 산처럼 퍼서 드려요. 그럼 그분도 만족하시고, 저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알아가는구나’하고 보람을 느끼죠.

Q 지난 24일에는 PRM사업본부가 종로구청장상도 받았습니.

노 종로구청에서는 매년 연말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표창하는데요, 올해에는 우리 본부가 선정

고 말하는데 어찌나 감동이던지. 그날 저도, 아이도 무척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마음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Q 회사에 제안하고 싶은 사회공헌 사업이 있나요?

정 손 편지를 써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은 어떨까요? 우리 회사의 대강의실, 중강의실 등을 활용해 종로구 주민을 위한 문화 공연이나 아카데미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들은 이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부방 교사를 해보고 싶어요. 사교육이 활성화된 요즘 아이들은 숙제도 학원에



사회공헌 결산

세계에 전해진 현대건설의 마음 5700명이 움직이니 2만5700명 웃었다

건설사 최초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우리 회사 임직원은 매년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10mile 이상 채운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바쁜 업무 중 짬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 사회공헌 활동은 10여 개. 문화재 지킴이, 사랑의 제빵, 복촌 거리 정화 및 벽화 그리기 등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는 직원들의 시간과 땀이 필수다. 3227명의 임직원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모은 사랑 나눔 기금(3억4200만원)은 종로구 미관 개선, 미안마 태양광 랜턴 지원, 스리랑카 아동복지센터 재건축 등에 쓰였다. 올해 모은 사랑 나눔 기금 역시 내년에 살뜰히 쓰일 것이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행복나눔'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내 건설사 최초이자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현대차·기아차에 이어 세 번째다.

● **행복 전하는 '사랑 나눔 도시락'** 2009년 이래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 회사 대표 사회공헌 활동 '사랑 나눔 도시락'. 피약별이 내리쬐는 여름방학과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방학에 진행하기에 직원들의 열정이 더욱 필요한 봉사활동이다. 직원들은 도시락 배달과 함께 '데일리레터'를 수혜아동·청소년과 주고받으며 매일 소통한다. 활동 기간 중에는 봉사자와 수혜자가 함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 **멘티의 꿈 응원하는 '꿈키움 멘토링'** 우리 회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시작한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청소년, 대학생, 우리 회사 직원이 3인 1조를 이뤄 청소년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장기 교육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발족한 2기 봉사단 48명은 올여름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청소년 멘티의 꿈을 응원했다. 올 9월에 활동을 시작한 3기 봉사단에는 총 20조 60명이 참여했



다. 직원 멘토들은 법조인이 꿈인 멘티에게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고, 건축가가 꿈인 멘티에게는 건설 현장 견학 기회를 줬다. 덕분에 학업에 큰 뜻이 없던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막연하게 꿈을 키우던 멘티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생겼다. 3기 봉사단은 내년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사회공헌도 '글로벌'하게

우리 회사가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2011년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지역에 교육복지센터를 세우면서부터다. 이후 중동 및 아시아 지역 8개 국가에서 18건,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신시장 7개 국가에서 9건 등 총 15개 국가, 27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올해에는 9개 국가에서 11개 사업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칠레 칠로에섬 빈곤층을 위한 주택 10세대를 신축하고, 15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동티모르에서는 보건 위생이 취약한 코빌라 로로마를 주민 중 50가구를 선정해 화장실을 신축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식수 지원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KOTRA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투자조정원에서 주관하는 '인도네시아 CSR 대상'을

우리 회사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올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직원 수는 4656명, 이들의 봉사 시간을 모두 합치면 3만2262시간에 이른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우리 회사 사회공헌 활동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글=박현희



1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4호'의 건설안전학교는 우리 회사의 역량으로 만들어졌다. 2 우간다 카물리 지역의 낡은 학교를 새단장했다. 사진은 나카카 초등학교 완공식. 3 직원들이 정독도서관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4 한철 캠페인. 5 사랑의 제빵 모습. 6-9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자들. 7 방글라데시 학교 증축 완공식. 8 해피무브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수상했다. 수상식은 12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2008년부터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해피무브!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과 8월 16, 17기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대학생 1020명(각 510명)을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파견했다. 우리 회사는 해외사업장과 연계해 해피무브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6년에는 베트남, 인도네시

아에 봉사단을 보냈다. 우리 회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유치원 교실을 추가로 세우거나 증축하고, 화장실과 위생시설을 개·보수했다.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수마트라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28세대를 신축하고, 공중 화장실 2개소를 건립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장과 연계한 해피무브 파견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베트남 안전의식 높이는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올해 우리 회사에서 진행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중 특별한 활동은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하노이공업전문대학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4호(이하 드림센터)'를 오픈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공식 개교한 드림센터는 자동차 정비 전문과와 건설 전문과를 육성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직업기술학교. 특히 드림센터 4호는 다른 업종의 두 기업(현대건설·현대자동차)이 해외에서 함께 CSV(Creating Shared Value, 사회공헌 활동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 사업을 진행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뜻깊다. 우리 회사와 현대차는 대학 내 기존 2개 건물을 개·보수해 자동차 정비기술학교와 건설안전학교를 만들었다.

건설안전학교는 오롯이 우리 회사의 역량으로 세워졌다. 우리 회사는 T/F를 구성해 커리큘럼과 교보재를 개발하고, 건설안전학교 강의를 맡은 하노이공업전문대학 교수들을 직접 교육했다. 이는 베트남 최초다. 현재 우리 회사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건설전문대학에 '현대건설 드림센터' 5호를 짓고 있다. 기능공 양성을 위한 건설전문학교로 우리 회사는 배관, 용접 교육 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오픈은 2017년 1월 예정이다.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주요 현황(2016)

활동명	기간	활동 내용
문화재 지킴이	3~6월(상반기) 9~11월(하반기)	• 고건물 보수 및 환경정화 활동(1, 3주차 수요일) • 주말(3주차 토요일)에는 가족 참여 가능
사랑 나눔 도시락	7~9월(하계) 12~1월(동계)	• 방학마다 지역사회 결식 아동 지원 •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저소득층 아동에게 도시락 배달 및 멘토링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2015년 10월~ 2016년 7월	•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학업 멘토링 및 진로 상담 • 연 단위 활동(월 2~3회 모임)
사랑의 제빵 봉사	3~12월	• 부서 단위 CSR 활동(2,4주차 목요일) • 종로·중구직접자봉사에서 제빵 및 포장 진행 • 주말(3주차 토요일)에는 가족 참여 가능
복촌(가회동) 지역사회 봉사	7월 8월 10월	• 정독도서관 외벽 및 입구 지역 타일 벽화 조성 • 관광 안내 지도 설치 • 정독도서관 옆 울벽, '독립운동가 오마주' 벽화 조성
한철 캠페인	분기별 1회 (3·6·9·11월)	• 한철 시 4mile 적립 (한철중 기부 시 1mile 추가 적립)

해외 사회공헌 활동 주요 현황(2016)

국가	활동명	활동 내용
베트남	•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4호 •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 베트남 최초 '건설 안전교육' 과정 개설 • 유치원 3곳 교실 신축 및 증축, 화장실 증축
인도네시아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28세대 신축 • 식수 지원(160가구), 화장실 2개소 건립
미얀마	• 초등학교 건립 지원 • 태양광 랜턴 전달 사업	• 초등학교 건립(수혜 학생 662명) • 신입사원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 1500여 개 전달
동티모르	로로마를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 화장실 신축(50가구), 보건 위생 교육 및 안전 교육(2814명)
칠레	소아질병 아동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중증 소아질병 10세대 주택 리모델링 • 중증 질병 아동 주거환경 개선 교육(150명)
필리핀	일로일로시 정수시설 지원	• 정수 시스템 설비 1개소 지원(수혜자 6500명)
우즈베키스탄	카르시 IT학교 건립 지원	• 노후화된 컴퓨터실, 도서관 등 학교시설 리모델링 • 수도시설 정비, 지역주민 쉼터 등 지원
스리랑카	콜롬보 지역 아동교육센터 건립	• 지역 아동교육센터 건립(수혜 학생 100명)
인도네시아	아체뫼아 학교보건위생 개선	• 지진 피해 15개 학교 대상 교내 위생시설 개보수, 보건 위생교육 실시(수혜학생 3447명)

생각의좌표 원숙한 리더가 조직을 살린다

“유능한 CEO가 되살릴 수 없을 만큼 엉망인 기업도, 무능력한 CEO가 파괴할 수 없을 만큼 우량한 기업도 없다.”

스웨덴 최대 대기업 집단인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의 2대 경영자인 마르쿠스 발렌베리 시니어가 1878년에 한 말이다. 그는 당시 경제 위기로 발렌베리가 소유 은행 SEB와 거래하던 수많은 기업이 부실에 빠지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업의 성패는 ‘경영자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선장(船長)이 우선이고 배는 그 다음이다. 아무리 엉망인 기업이라도 CEO가 유능하다면 살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을 강대국으로 올려놓은 콘라트 아데나워

그로부터 14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불확실하고 암울하다. 그러나 탁월한 리더와 리더십만 있다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인들이 ‘영시(零時·Stunde Null)’라고 부를 정도로 나라도, 지도자도, 돈도 없어 모든 시계가 멈춰섰던 것과 같은 절망적인 시기를 딛고 선진 강대국의 반석을 놓은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74세에 전후(戰後) 첫 총리로 뽑힌 그는 1953년과 57, 61년 등 세 번에 걸쳐 재선돼 88세까지 봉직했다. 그의 위대함은

일시적인 자라나 명예욕을 위해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지 않고 자신의 등장·퇴진 시점과 시대적 소명을 정확하게 꿰뚫은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해 집요함과 배짱을 발휘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그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 총부리를 겨눴던 ‘양속’ 프랑스와의 화해를 위해 집권 후 첫 4년 동안 스물여섯 번이나 파리를 방문해 1953년 ‘엘리제 조약’ 체결에 합의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매년 평균 여섯 번꼴로 과거 적국(敵國)을 찾아가 ‘친구’가 되려고 애쓴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아데나워는 또 다른 적국인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1955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는 담대한 외교술을 과시했다. 현장에서 흐루쇼프가 “독일은 나치스의 후예 국가”라고 말하자 아데나워는 책상을 치며 큰 소리로 “우리는 당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맞받아쳐 회담이 결렬된 것이다. 하지만 아데나워는 전혀 초조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련 측에서 당황해 다시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아데나워는 이 회담에서 독일의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만 명의 독일군 전쟁포로 송환을 성사시켰다.

1935년 본 근처 라인강변에 있는 윈도프르라는 작은 시골에 거처를 마련한 아데나워는 1967년 세상을 뜰 때까지 집에서 살았다. 총리 재임 중에도 관저에서 살지 않고 윈도프르에서 출퇴

근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라인 강변의 아담하고 작은 이층집은 독일 국민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 아데나워와 그의 일가친척은 퇴임 후나 재임 중 어떤 도덕적·금전적 비난이나 부정에 연루되지 않았다.

일본 벤처기업의 제왕, 사와다 히데오

일본의 ‘벤처기업 3대 천왕(天王)’ 중 한명인 사와다 히데오(澤田秀雄·65) HIS그룹 회장은 경제계에서 ‘할 수 있다’ 정신을 실현한 리더다. 1980년 일본 최초의 가격과괴형 항공권 판매 회사를 세워 젊은이들의 ‘반값 해외여행’ 꿈을 현실로 만든 그는 일본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 설립, 교리쓰증권 인수, 몽골 AG은행 인수 등 손대는 곳마다 성공했다. 히데오 회장은 18년 내내 적자를 내던 규슈 사세보(佐世保)에 있는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의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취임 첫해에 첫 흑자로 탈바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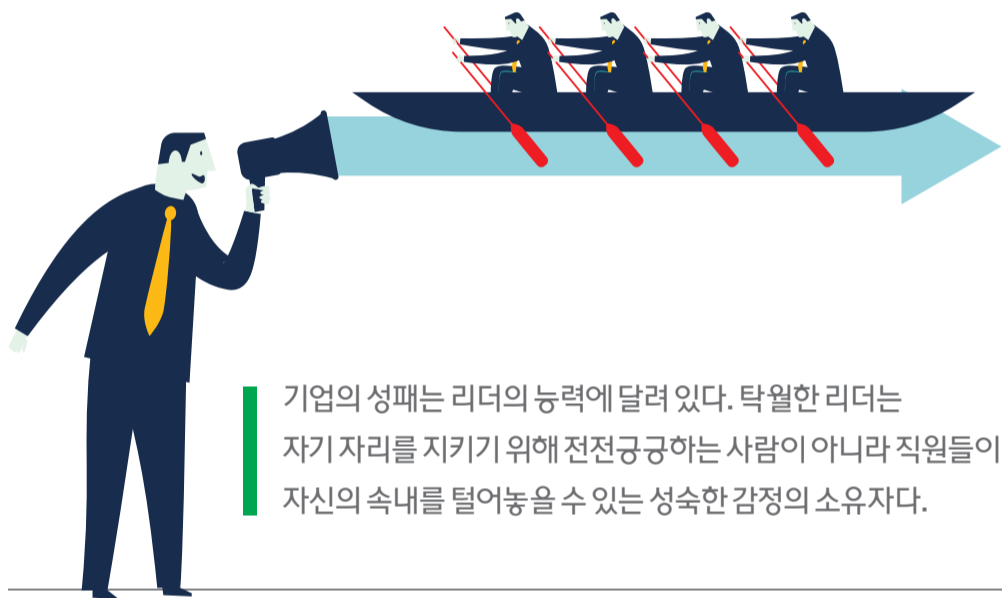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두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사람의 야루키(やる氣·하고자 하는 의욕)’이다. “야루키를 갖고 간절히, 아주 간절히 성공을 원했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 운(運)을 붙잡고 생각을 실현하는 포인트는 우선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립해 목표로 삼고 ‘기도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큰 힘이 생긴다.” 둘째는 ‘속도’와 ‘전략’이다. 그는 “빨리 결단하고 빨리 움직이면 경비는 20% 정도 내려간다. 더 빨리 하면 10시간 걸릴 일도 8시간에 된다. 그럼 2시간분의 코스트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고객이 감동하는 것, 일본 제일의 것을 만들면 고객이 몰린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대에 맞춰 올바른 일을 한다면 음해와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리더십 전문가인 린다 힐(Linda Hill) 교수는 자신의 저서 『보스의 탄생(Being the boss)』에서 위대한 보스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전공공하는 불안정한 보스가 아니라 직원이 자신의 속내를 톺아낼 수 있도록 감정을 공유하는 성숙한 감정의 관리자여야 한다고 말한다. 린다 힐이 설파하는 것과 같은 원숙한 리더들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기업, 공무원 사회 등에서 많이 등장해 밝은 미래가 열렸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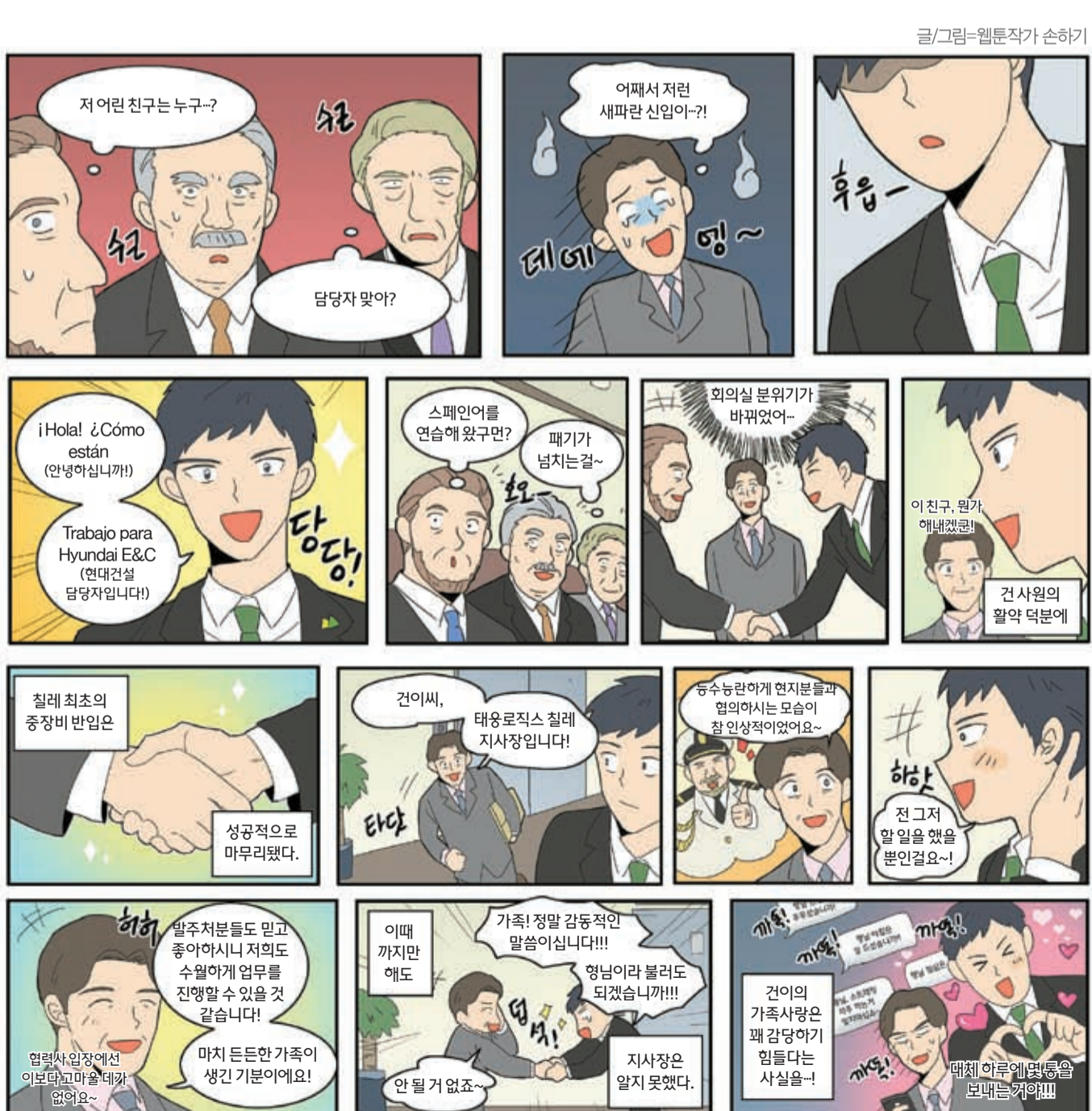
기업의 성패는 리더의 능력에 달려 있다. 탁월한 리더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전공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성숙한 감정의 소유자다.



송의달
조선경제연구원 대표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비(Newbie): 풋내기, 새로 온 사람, 어떤 직업에 대한 무경험자를 지칭하는 신조어.
* 본 만화는 현대건설 '아름다운 동행 스토리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칼바람이 불어오니 몸이 앞서 안달 내는 게 있다. 모락모락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온탕이다. 뜨끈뜨끈한 물에 온몸을 불리고 구석구석~ 시원하게 때까지 밀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하지만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음식 맛이 같을 수는 없는 법. 때를 밀었다고 해서 개운함이 동일할 수도 없다. 요리도 때밀이도 사람의 손맛에 달린 까닭이다. 이 기막힌 손맛을 자랑하는 '때밀이 고수'를 찾아 나섰다. 동네 사우나부터 특급호텔까지 매너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서울 때밀이 명가 5곳을 소개한다. 글=양보라 <중앙일보> 기자, 사진=임현동 <중앙일보> 기자, 각 업체

문화칼럼

서울서 유명한 '때밀이' 명가 “그시절의 목욕탕을 기억하시나요?”



때밀이사관학교 토성사우나

세신학원 대정목욕관리학원 출신의 수습 세신사가 실전 경험을 쌓는 사우나다. 실습생뿐 아니라 사우나에 상주하는 세신사 10여 명도 모두 같은 학원 출신이다. 세신 프로그램은 A·B코스로 나뉘는데 A는 일반 세신사가, B코스는 실습생이 때를 밀어준다. 전신 세신 서비스를 세신사에게 받으면 1만원, 실습생에게 받으면 7000원이다. 세신하고 나면 족욕에서 강판에 간 오일로 얼굴팩을 해준다.

나옥심(48) 사장은 “손님을 응대할 때 서둘 수도 있지만 실습생의 기술과 정성은 베테랑에 못지않다”며 “같은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실습생을 선호하는 고객도 많다”고 말했다. 사우나를 찾는 손님 10명 중 9명은 세신 서비스를 받는다.

세신사가 '때 공장'이라고 부르는 세신 침대는 모두 10개다. 평일에는 회전율이 빠르지만 주말에는 700~800명이 몰리는 터라 서너 시간을 대기해야 할 때도 있다. 세신 후 전신에 스팀 타월을 덮어 피부를 진정시킨 뒤 오일마사지로 마무리하는 전신 마사지 상품(80분·3만원)이 가장 인기 있다. 풍납동(2006년 개장), 화곡동(2015년 개장)에도 같은 이름의 사우나가 있다.

입장료 6000원, 세신 3만원
서울 양천구 신정로 312
02-2698-9972



연예인의 사랑방 유사우나

배우 이미연·김희선 등 유명 연예인이 단골로 찾는 여성 전용 사우나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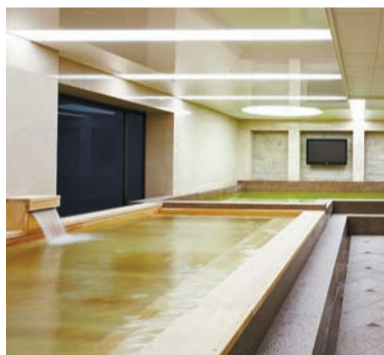
30년간 운영했던 대중탕 '유가탕'을 2010년 현대식 사우나 시설로 고치면서 이름도 '유사우나'로 바꿨다. 명성과 달리 온탕 2개에 세신 침대 2개로 규모는 작다.

손님이 하루 70~80명 정도인데, 동네 주민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풍문을 듣고 찾아오는 외지인이다. 유사우나는 30년 경력의 세신사가 꼼꼼하게 때를 밀어주기로 명성이 높다.

세신사는 2명이 짝을 이뤄 4명이 번갈아 가며 출근한다. 그중 이순희(가명)씨가 '신의 손'으로 불리는 세신사다. 손님 사이에서 일명 '이순 언니' '2번 언니'로 통한다.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온몸의 각질을 말끔히 벗겨 준다. 서비스를 받고 나면 손등과 종아리에 반질 반질 윤이 난다는 증언도 잇따른다.

세신사 한 명이 하루 20명 정도 손님을 받는데 90%가 예약 손님이다. 세신 2만5000원, 사우나 매점에서 판매하는 레몬오미자차(5000원)가 별미다. 엄순덕(59) 사장이 가락시장에서 매일 재료를 들여와 직접 만든다.

입장료 1만원, 10회 입장권 8만원, 세신 2만 5000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4
02-515-0260



특급호텔 특급 때밀이 호텔 리츠칼튼 서울

호텔신라, 웨스틴 조선호텔,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 등 특급 호텔은 대부분 투숙객을 대상으로 때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호텔은 때밀이 서비스를 굳이 알리지 않는다. 반면에 호텔 리츠칼튼 서울은 당당하다.

베테랑 세신사 김중빈(61) 실장 때문이다. 세신사 사이에서 김 실장의 명성은 자자하다. 그의 세신 서비스에 반해 호텔에 투숙하는 단골이 있을 정도다.

김 실장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시 겐코칸도(일본식 찜질방)에서 마사지 기술을 익힌 뒤 84년 리츠칼튼 호텔 전신인 남서울호텔에 입사했다. 그는 2012년 작고한 헤어디자이너 '비달 사순'을 가장 인상 깊은 손님으로 꼽았다. 열 번 넘게 한국을 찾았는데 올 때마다 때밀이를 즐겼고, 매번 20달러를 팁으로 건네는 센스도 잊지 않았단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포르투갈 팀의 주장 루이스 피구가 한국 원정에 대동했던 자국 마사지사들을 물리고 날마다 김 실장을 찾아왔었다고 한다. 김 실장의 손맛을 느끼려면 최소 1주일 전 예약이 필수다. 리츠칼튼 호텔은 탕에 받은 물을 30분마다 완전히 교체하고, 한번 사용했던 때수건은 폐기한다.

세신 3만3000원 (30분, 세금 포함)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0
02-3451-8000

신(新)한류 명소 드래곤힐스파

지상 7층, 면적 5만6000㎡에 이르는 대형 찜질방이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식 찜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체험관광 명소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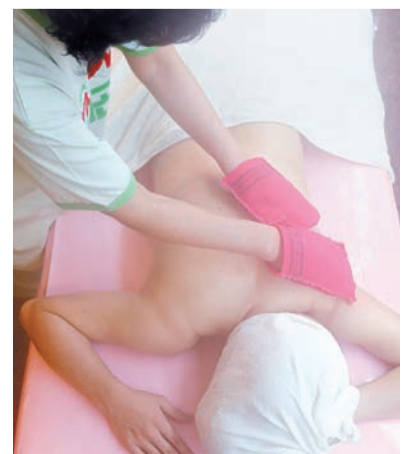
지난해 100만 명이 방문했는데, 약 30%가 외국인이었다. 미국·일본·러시아·중국·홍콩 등 국적도 다양하다. 영어·일어·중국어가 가능한 안내원이 24시간 대기한다. 건물 2층에 여성사우나가 있다.

여성 세신실에 세신 침대 10개를 갖추고 있고, 세신사는 모두 14명이다. 7명씩 24시간을 주기로 교대한다. 세신과 마사지 매뉴얼이 있어 어느 세신사에게 요청해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 중 절반은 외국인이다. 세신사 김영희(48·가명)씨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손님이 옷을 입은 채 때를 밀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식 때밀이’에 익숙한 외국인이 더 많다”고 소개했다.

찜질방은 야외수영장과 노천탕까지 갖추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 1만2000원, 세신 2만원(20분)
여성패키지(세신+전신마사지) 13만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1나길 40, 02-792-0001



일본식 때밀이 명가 명동서울사우나

명동을 대표하는 일본인 전용 여성사우나다. 일본인 관광객이 줄면서 명동 일대 6곳에 달했던 일본인 전용 사우나는 지난해만 2곳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명동 서울사우나는 곳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본 언론이 여러 차례 다룬 서울의 '에스테(마용업소)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 명소로, 1년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단골이 대부분이다.

하루 20명 정도만 예약을 받아 소규모로 운영한다. 온탕 2개와 마사지실을 갖췄다. 세신사 3명은 모두 칠순이 넘는 40년 이상의 경력자다. 장영희(58) 사장은 “한국 사람은 나이 든 세신사를 부담스러워 하지만 일본은 장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고령의 세신사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부드러운 타월로 1시간 동안 꼼꼼히 밀어주는 덕분에 오히려 반응이 좋단다. 최근에는 교포가 알음알음 찾아오고, 홍콩·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호텔·사우나 차량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밀이·오이팩·전신마사지 등이 포함된 베이식 코스(8만원)를 이용하면 한복 입기 체험도 무료다. 한증막과 목욕탕을 한적하게 즐길 수 있다.

입장료 1만5000원, 세신 8만원
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9
02-2269-2222

현대건설 사업소개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땅과 땅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말합니다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플랜트사업

축적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으로
글로벌 플랜트 시장을 이끌어하겠습니다

- 가스처리 · 정유 · 석유화학
- 원자력 · 산업설비

- A** 사우디 마덴 알루미늄 제련소 2012. 03 - 2014. 11
- B** 사우디 카란 가스처리시설 2009. 03 - 2012. 06
- C**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리크루즈 정유공장 2012. 09 - 2017. 07
- D** 대한민국 현대오일뱅크 혼합자일렌 프로젝트 2014. 11 - 2016. 12
- E** U.A.E 바라카 원전 2010. 03 - 2020. 05

인프라환경사업

인프라 사업에서 첨단 환경 분야까지
세계를 무대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겠습니다

- 도로 · 지하공간 · LNG/석유터미널
- 항만 · 준설/매립 · 물환경/수처리

- F** U.A.E 칼리파포트 산업단지 항만 2007. 10 - 2010. 12
- G**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 1968. 02 - 1970. 07
- H**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2013. 06 - 2016. 08
- I** 싱가포르 주룽석유비축기지 2009. 06 - 2017. 03
- J**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1976. 06 - 1980. 12
- K**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장 2015. 10 - 2019. 07

건축사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건축공간,
앞선 상상력과 창의적 열정으로 실현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 · 주거시설 · 업무시설/복합개발
- 병원/의료시설 · 교통시설

- O** 카타르 국립 박물관 2011. 09 - 2016. 05
- P** 싱가포르 쿠텍 푸아트 병원 2008. 03 - 2010. 03
- Q** 대한민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015. 05 - 2017. 09
- R** 대한민국 인천아시아안계임 주경기장 2011. 06 - 2014. 09
- S** 싱가포르 썬텍시티 1992. 04 - 1995. 09
- T** 대한민국 김포 고촌 힐스테이트 2005. 09 - 2008. 04
- U** 남극 정보과학기지 2010. 12 - 2014. 05

전력사업

첨단 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 발전설비 · 송/변전설비
- 신재생에너지 · 담수플랜트

- L** 카타르 라스라판 C 복합화력발전소 2008. 05 - 2011. 04
- M** 걸프 연안국가 400kV 송전선 2005. 11 - 2009. 01
- N** 사우디 뉴 주베일 380kV 변전소 공사 2014. 07 - 2017. 10

